

사계절 동안마다 환상적인 골프프로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임핑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 광주·동광명IC 구간 광복동점도 완공
- (당일 출퇴근IC 영수증 프린트 서비스)
- 우천시 9월 이후 출발요금정산제 실시
- 예약: www.hpdyndy.co.kr 0801-320-7700



김정행 베이징올림픽선수단장을 비롯한 선수 임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2008베이징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에서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한국은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 10개 이상을 획득해 2회 연속 톱10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10 목표... "가자 베이징으로"

예상 금메달 예상 순위

태극전사들이 2008 베이징올림픽을 향한 진군을 시작했다.

8월 8일 개막하는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선수단은 25일 서울시 송파구 오륜동 올림픽공원내 올림픽 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연택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결단식을 갖고 필승 의지를 다졌다.

이번 올림픽에서 국가별 순위 10위내 진입을 노리는 국가대표선수단은 임원 122명, 남자 선수 160명, 여자 선수 107



태극전사들 어제 결단식 선수단 389명 선전 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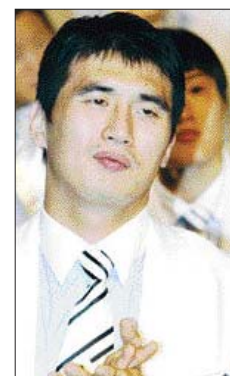
명 등 총 389명으로 구성됐다. 경기 일정에 따라 베이징으로 먼저 출발할 선수들도 있어 이날 행사에는 250여명의 선수단이 참석했다. 한승수 총리가 선수단을 격려한 뒤 김정행 선수단장은

"태극선수촌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한 선수들은 결전의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며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패어 플레이를 펼치고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선수단을 격려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를 선수 대표에게 전달했다. 연예인 원정 응원단도 이날 결단식을 갖고 태극전사들의 선전을 기원했고 어린이 합창단과 인기 록그룹 '크라임잇'의 공연이 이어지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한편 선수단 본진은 8월1일 베이징으로 출발해 현지 적응 훈련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선수단 기수에 유도 장성호

8월8일 개막될 2008 베이징올림픽 개회식에 한국선수단의 선봉에서 입장할 기수가 확정됐다.



대한올림픽위원회(KOC)는 25일 한국선수단 기수로 유도(30·수원시청·사진)를 선정해 발표했다. 남자유도 100kg급 간판스타인 장성호는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은메달을 차지했고 2006년 도하아시아게임에서는 금메

달을 목에 걸었다. 장성호는 이번 대회에서도 상위 입상을 노리는 강력한 메달 후보다. 선수단은 일단 장성호를 기수로 선정했지만 개회식을 앞두고 북한과 공동 입장 가능성이 커지면서 남북한 공동 기수가 나설 전망이다. 아테네올림픽에서는 배구의 구민정이 북한의 김성호 농구감독과 '남녀북남(남女北男)'로 나섰기 때문에 남북이 베이징 현지에서 전격적으로 공동 입장을 결정할 경우 장성호가 북한의 여자선수인 '남녀북녀(南男女女)' 공동기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 KOC는 선수단 주장으로 남자는 '마라톤' 이봉주(38·삼성전자), 여자는 핸드볼 오성욱(36)을 각각 임명했다.



박성화호 내일 '맞춤형 모의고사'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 축구대표팀이 본선 조별리그 첫 경기 상대인 카메룬과 일전을 대비해 맞춤형 모의고사를 치른다. 올림픽대표팀은 27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아프리카 대륙의 코트디부아르와 친선경기를 갖는다. 코트디부아르는 베이징 올림픽 본선 출전국으로 지난 아테네 대회 챔피언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호주, 세르비아와 A조에 속했다. 올림픽 본선 무대를 밟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2006 독일 월드컵에도 출전하는 등 코트디부아르는 아프리카 축구의 신승 강자로 급부상 중이다. 다음달 7일 친황다오에서 카메룬과 베이징올림픽 조별리그 D조 1차전을 갖는 한국으로서는 아프리카 축구에 대한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한국은 아테네올림픽 조별리그 3차전에서 아프리카 말리

에 세 골을 먼저 내주고 가까스로 3-3 무승부를 거둬 8강까지 올랐다. 코트디부아르는 아프리카 최종예선에서 B조 1위로 베이징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다. 25일 두 팀으로 나눠 입국한 코트디부아르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에서 뛰고 있는 공격수 살로몬 칼루 등이 포진해 있다. 한국과 코트디부아르의 대표팀 간 맞대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까지 몸 상태로 보면 최전방 투톱은 이근호(대구)-신영록(수원) 조합이 선발로 나서고 박주영(서울)이 조커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근호는 그동안 대표팀과 소속팀에서 꾸준한 활약을 해왔고, 박성화호 '제3의 공격수'로 낙점된 신영록도 박 감독이 "아주 좋다. 컨디션이 좋다는 게 눈에 보인다"고 밝힐 정도로 최상의 슈팅 감각과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다.

코트디부아르와 친선 경기 이근호-신영록 투톱 가동

좌·우 미드필더로는 김승용(광주)과 이창용(서울)이 짝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중앙 미드필더에는 와일드카드 김정우(성남)-기성용(서울) 카드가 유력해 보이지만 부상에서 돌아온 백지훈(수원)과 오창은(울산)이 빠르게 제 기량을 회복해 박 감독이 어떤 선택을 내릴 지 관심이 쏠린다. 포백 수비라인에서는 와일드카드로 합류한 '만형' 김동진(제니트)이 김창수(부산)와 좌·우 풀백의 임무를 맡고, 김진규(서울)-김민수(전북)가 중앙에 버팀 전망이다. 물론 오른쪽 풀백으로 20세 이하 청소년대표 출신 신광훈(전북)을 넣어 경쟁을 부추길 수도 있고, '골 넣는 수비수' 김근환(경희대)을 투입해 김진규-김근환, 강민수-김근환 조합에 대한 가능성을 엿볼 수도 있다. 골문은 A대표팀에서도 주전으로 뛰어 온 정성룡(성남)이 지킨다.

앤서니 김 시즌 3승 '청신호'

PGA 캐나다오픈 1R 선두

'포스트 타이거' 선두주자로 꼽히는 재미교포 앤서니 김(23·나이키골프)이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시즌 세번째 우승에 청신호를 켰다. 앤서니는 25일(한국시간) 캐나다 오크빌의 글렌레이크골프장(파71·7천273야드)에서 열린 PGA 투어 RBC캐나다오픈 1라운드에서 버디 7개를 뽑아내며 6언더파 65타를 쳤다. 홈코스의 마이크 위어(캐나다), 그리고 에릭 액슬리(미국)와 함께 공동 선두에 오른 앤서니는 3주만에 또 하나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발판을 마련했다. 브리티시오픈에서 공동7위에 올라 메이저대회 첫 '톱10'이라는 성과를 거두고 북아메리카로 복귀한 앤서니는 거의 흠잡을 데 없는 플레이를 펼쳤다. 평균 299.5야드의 장타를 날리면서도 페어웨이를 벗어난 티샷은 단 한번 뿐이었고 그린을 놓친 것도 3차례에 불과했다.

안선주 6언더 공동 2위 선두 오초아에 1타 뒤져 LPGA 에비앙마스터스 1R

지난 24일(한국시간) 프랑스 에비앙-르뱅의 에비앙마스터스 골프장(파72·6천347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에비앙마스터스 첫날 안선주(21·하이마트)와 브라질 교포 안젤라 박(20·LG전자)이 6언더파 66타를 쳐 오초아(7언더파 65타)에 1타 뒤진 공동 2위에 올랐다. 이마나(27·KTF)가 5언더파 67타로 공동 4위, 김인경(20·하나금융)과 김영(28), 양희영(20·삼성전자)이 4언더파 68타로 공동 10위에 자리잡았다.



26일(토)
▲프로야구 <LG·SK>(16:40·KBSN SPORTS), <삼성·두산>(16:50·Xports), <기아·우리>(17:00·MBCESPN), <한화·롯데>(16:40·SBS스포츠)
▲에비앙 마스터스 3R(21:00·SBS골프)
▲월드리그 배구 준결승(22:00·KBSN SPORTS)
27일(일)
▲월드리그 배구 준결승(01:00·KBSN SPORTS)
▲PGA RBC 캐나다오픈 3R(04:00·SBS골프·SBS스포츠)